

김현의 소설비평에 대한 연구

비평 인식과 사유체계를 중심으로

강경화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조교수, 현대비평 전공

tangsun08@hanyang.ac.kr

- I. 문제 제기
- II. 시대의 매너로서 '풍속'의 부재와 '새것 콤플렉스'
- III. 역사의식의 다면성과 문화의 고고학
- IV. 샤머니즘과 허무주의의 극복
- V.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삶의 기원으로서 '살 만한 곳'
- VI. 맺음말

I. 문제 제기

이 글은 김현 비평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작업의 하나로 그의 소설비평에서 드러나는 비평 인식과 사유체계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김현은 1962년 「나르시스 시론」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불문학자이자 문학연구가, 『문학과지성』 편집인으로서, 특히 문학비평가로서 빼어난 성과를 남겼다. 또한 거침없는 논리와 논쟁적인 이론으로 문학의 자율적 지평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깊고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가 남긴 비평적 성과와 관련하여,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깊이와 넉넉함으로 한국문학의 모든 분야를 풍요롭게 만드는 작업에 온 힘을 기울였”¹⁾고, “문학과 비평의 행복한 만남을 육체화한 비평가”²⁾이며, 그의 비평에 이르러 “비로소 문학비평은 독립된 창작영역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³⁾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 문학은 그의 매만짐에 의해 비로소 순금으로 변해가기조차 하였다”⁴⁾는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물론 그에 대한 비판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는데, 김현의 존재는 입장에 따라 공감, 반발, 저항을 일으킨 ‘뜨거운 상징’⁵⁾으로 한국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현 비평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추모와 헌사를 넘어 학문적인 탐색의 대상이 되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 몇 가지 범주에서 진행되어왔는데, 비평적 주체화와 세대론적 전략, 시비평이나 미의식의 관점, 비평관과 문학론, 한국문학의 양식화와 문학사에 대한 고찰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논의를 통해 김현 비평 전반에 대해 다면적이고 깊이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김현의 ‘신화’에서 벗어나 ‘역사화’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김현을 둘러싼 과장되거나 왜곡된 ‘신화’와 ‘풍문’을 벗겨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면서도 적절한 작업이다.⁶⁾

1) 「발간사」, 『문학과사회』 12(1990), 1,362쪽.

2) 유성호, 「김현 비평의 맥락과 지향」, 『한국언어문화』 48집(2012), 194쪽.

3) 이경수, 「나로부터 출발한 운명적 이중성」, 작가와 비평 편, 『김현 신화 다시 읽기』(이룸, 2008), 137쪽.

4) 김윤식, 『작가와 내면풍경』(동서문학사, 1991), 94쪽.

5) 김현, 「뜨거운 상징을 찾으며」, 『전체에 대한 통찰』(나남, 1990), 8쪽. 앞으로 김현의 글은 저자명을 적지 않음.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김현의 소설비평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의외로'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김현 비평의 독창적인 시각과 비평적 혜안이 잘 드러난 영역이 무엇보다 그의 문학론과 시비평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긴 하다. 그러나 김현 비평의 전체적인 변모의 궤적과 특성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의 소설비평 또한 세밀하게 고찰되어야 한다. 실제 비평으로서 소설비평은 이론비평의 실천적 현장이며, 이론과 실제의 정합성을 판단할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김현의 소설비평을 통해 그가 문학론에서 개진했던 문학과 비평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소설비평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대체로 1970년대 이후의 소설비평이나 몇몇 대표적인 비평문에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김현이 소설비평을 시작한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소설비평에 대한 연구는 영성(零星)한 실정이다. 또한 이 시기의 소설비평 중에는 『전집』에서 누락된 까닭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 「한국문학과 전통의 확립」, 「한국현대소설을 진단한다」, 「사마니즘의 극복」, 「1968년의 작가상황」,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등의 중요한 평문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여러 월평과 비평문을 포함하여 김현의 소설비평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 두 가지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으려는 김현의 소설비평은 1960년대 중반부터 『문학과지성』 창간을 전후한 시기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기 미정형 상태였던 김현은 시 중심에서 소설로의 영역 확대, 한국문학에 대한 통찰과 인식, 1950년대 문학과와의 차별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평적 주체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김현 자신이 비교적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처럼⁷⁾ 1964-1965년 무렵부터 문학과 인간에 대한 비평적 관심이 변모되기 시작했으며, 『문학과지성』 창간을 전후하여 다시 한 번 관심사가 변모하면서 확연히 한국문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넓고 깊게 응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⁸⁾ 이후 그의 비평은 세대론을

6) 강경화, 「김현의 초기 비평에 나타난 주체화와 담론의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6집(2014), 174-175쪽.

7) 「자서」, 『김현 문학전집』 2(문학과지성사, 1991), 147쪽. 앞으로 『김현 문학전집』은 『전집』으로만 표기함.

넘어 한국문학의 정립을 위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는데, 그 결과물들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1972), 『한국문학사』(1973), 『한국문학의 위상』(1977), 『우리 시대의 문학』(1979), 『문학과 유토피아』(1980) 등이다.

둘째, 김현의 비평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비평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비평 전체에 걸쳐 곳곳에서 김현 특유의 여러 개념과 마주할 수 있다. ‘풍속’, ‘이념형’, ‘새것 콤플렉스’, ‘양식화’, ‘허무주의’, ‘패배주의’, ‘샤머니즘’, ‘역사의식’, ‘문화의 고고학’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용어들은 자칫 각기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인과관계나 상호 보충적으로 때로는 개념의 진폭에 따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김현의 비평적 사유체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면, 이들이 어떤 관계로 김현의 비평 인식을 형성하고 드러나는지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II. 시대의 매너로서 ‘풍속’의 부재와 ‘새것 콤플렉스’

김현의 초기 비평은 언어와의 만남을 통해 타자와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 탐색의 도정이었다. 이 점에서 그에게 비평은 비평 이상의 것, 즉 ‘실존적 기획’이었다.⁸⁾ 그러나 아직 비평가로서 자기동일성도, 세대론적 주체화도, 한국문학의 정체성도 정립하지 못했던 미정형의 ‘흔들림’ 속에서 점차 자신의 비평세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김현은 비평적 판단의 준거로서 프랑스 문학을 앞세웠던 경향이 줄어들었다. 대신 한국문학의 틀과 미학을 찾기 위한 탐색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19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의 기점에 놓인 것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김현은 평론집의

8) 강경화, 「김현 비평의 주체 정립에 관한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25집(2005), 89쪽. 이 시기는 정과리가 나누었던 세 단계 중 첫 번째 시기와 공점한다. 정과리, 「못다 쓴 해설」, 『전체에 대한 통찰』(나남, 1990).

9) 강경화, 앞의 논문(2014), 186쪽.

「자서」에서 눈에 띄게 표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67-1968년이 자신의 비평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었는데, 그 변모는 급격한 것이 아니라 1964-1965년경의 소설비평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그 변모의 중심에 삶과 사회에 대한 탐구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¹⁰⁾

실제로 김현은 1966년부터 확연히 소설로의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그와 더불어 사회, 역사, 현실, 삶의 문제가 소설비평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한국문학을 이 땅의 경험적 현실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모와 더불어 그가 비평적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한국문학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선형적 대상이었던 서구 문학과 경험적 현실인 한국문학 사이의 간극 앞에 선 그에게 그것은 절실한 문제였다. 그런 절실함이 “우리는 남보다 몇십 년 뒤져 있어야만 한단 말인가”¹¹⁾라는 이상의 발언을 거듭 인용하고, “한국소설이 저 지루하고 답답한 골방 속에서 벗어나”¹²⁾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보다 큰 용기를 얻기 위해 “솔직히 한국문화의 지지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리라”¹³⁾ 주문하며, “정말로 우리가 그 일을 맡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¹⁴⁾라는 결연한 책무를 내세우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국문학의 낙후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비평적 노력은 장르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시의 영역에서 한국시의 ‘틀’과 ‘미학’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되었다면, 소설에서는 한국적 풍속에 대한 탐색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한국문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비평문이 「한국문학과 전통의 확립」이다. 이 글은 이전의 비평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문제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자국어로서 한국어의 중요성, 1950년대 문학의 성과와 한계, 전통의 확립 문제, 한국시의 가능성과 자국어의 틀에 대한 관심 등이 거의 처음으로 표명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직 시론적인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논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후 김현 비평에서 1970년대 너머까지 깊이와 넓이를 갖추면서 되풀이 강조되는 문제의식들이다.

10) 「자서」, 『전집』 3, 10쪽; 「자서」, 『전집』 2, 147쪽.

11) 「풍속적 인간」, 『전집』 2, 356쪽;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전집』 2, 47쪽.

12) 「풍속적 인간」, 『전집』 2, 365쪽.

13) 「한 외국문학도의 고백」, 『전집』 3, 22쪽.

14) 「편집자의 말」, 『68 문학』(1969. 1).

이 글에서 특히 소설비평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의 하나는 '풍속'에 대한 그의 언급이다.

사실상 오늘날에 있어서 문제되어야 할 것은 한국문학은 단절되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혹은 작가나 시인들은 현실에서 참여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 고대문학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느냐, 하는 피상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이 시대를 딛 시대와 구분하는 시대의 매너, 최인훈 씨가 즐겨 말하는 그 태도의 정착을 작품을 통하여 찾아내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¹⁵⁾

'풍속'은 김현의 소설비평 나아가 그의 비평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다. 실제로 김현은 여러 비평문에서 '풍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 외국문학도의 고백」에서는 '풍속'이 문학작품의 중요한 기반임을 지적하고, 「글은 왜 쓰는가」에서는 한 시대의 상징적 기호이자 성감대임을 강조하며, 「개화기 문학의 두 측면」에서는 그 사회의 풍속과 밀접하게 연결된 의미체계가 문학의 언어라고 규정한다. 또한 풍속은 한국문학의 이념형의 탐색과도 관련된다.¹⁶⁾ 나아가 '풍속'은 새것 콤플렉스나 세대의식, 역사 인식이나 문화의 고고학 등과 같은 김현 특유의 비평적 문제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시대의 매너는 '풍속'을 뜻한다. 김현은 전통의 단절 여부나 문학의 현실 참여는 오히려 피상적인 문제일 따름이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본질은 시대의 매너를 작품을 통해 찾아내는 일에 있다. 이 대목은 언뜻 간략한 언급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것이 1930년대와 1950년대 문학 사이에 변별점이 없는 이유이고, 한 시대 문학의 구조나 틀을 찾아야 할 비평가의 임무에 해당하며, 한국문학의 특수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시대의 매너, 곧 풍속을 찾는 작업이 소설비평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소설과 풍속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대표적인 글이 「풍속적 인간」이다.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을 다룬 이 글에서 김현이 주목한 것은 한국소설에서 풍속적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다. 그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소설에 형상화된 근대인들은 치명적인

15) 「한국문학과 전통의 확립」, 『세대』(1966. 2), 252쪽.

16) 「한국문학의 가능성」, 『전집』 2; 「광신의 현실 파악」, 『전집』 15; 「풍속과 이념의 괴리 현상」, 『전집』 15.

결점을 안고 있고, 그것은 돈에 대한 열쇠와 근대화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에서 연유한다. 그 핵심에 놓인 것이 바로 시대의 매너로서 풍습의 부재라고 보았던 것이다.

김현은 돈을 근대 자본주의에서 유동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매개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그가 돈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암시적 의미' 또는 '성립되고 있는 문화의 총체'적 성격이다. 이것이 시대의 매너이다. 한 시대를 다른 시대와 구분하는 시대의 매너가 풍습(풍속)인데, 결국 풍습은 돈이 만들어 낸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설 속 인간을 만드는 것은 풍습이다. 그렇다면 그가 제시하는 풍습의 구체적인 세목은 무엇인가. 이를테면 인사말의 어조와 말다툼할 때의 말투, 속어와 유머와 유행가의 음조, 어린애들의 노는 법, 급사가 접시를 놓을 때의 몸짓,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성질"에 의해서 소설의 인간은 '만들어'진다. 또한 "때로는 복장과 장식에 의해서, 때로는 어조·몸짓·강조·리듬, 때로는 특별한 빈도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 말에 의한 사소한 동작에 의해서" 암시된다.¹⁷⁾ 그러니까 풍속이란 한 사회의 독특한 구조 속에 자라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생활방식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소설 속 인물을 생생하게 만든다. 김현이 보기에 한국소설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 또는 한국소설의 주인공들이 겪는 가장 곤란한 상황은 바로 이 풍속의 결여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소설의 대부분이 아무런 현실감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아무런 밀접한 동류의식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잘난 체하는 것의 결여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 인물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인 풍습, 시대를 가르는 매너를 찾지 못했을 때 그 인물이 유명인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소설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껏해야 허숙방과 다방, 그리고 농촌이며, 십대의 뿌리 깊이 못한 곳에서 나오는 대화뿐이다.¹⁸⁾

풍속의 결여 속에 소설의 인물은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허공에 뜬 바보 같은 유령들'만 나타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한국소설의 치명적인 결함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자명하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맞는

17) 「풍속적 인간」, 『전집』 2, 354쪽.

18) 「풍속적 인간」, 『전집』 2, 355쪽.

풍습을 만들고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광수 문학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도 풍속의 변화와 갈등을 예리하게 포착한 데 있다.¹⁹⁾ 그것은 한 사회의 풍속에서 자라난 감정을 묘사하고 전달함으로써 한 사회의 정확한 모습을 표출해내는 것이 소설의 임무이자 작가의 도리이기 때문이다.²⁰⁾ 마찬가지로 한국소설이 추구해야 할 과제는 풍속 속에 단단하게 구축된 풍속적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소설의 이러한 치명적 결함이 생겨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내장되어 있다. 그것은 서구문학을 직수입했던 한국문학의 태생적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동시에 한국문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최인훈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괴상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기하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구적인 풍습과 토속적 풍습의 사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풍속적 인간에 대한 것처럼 생각된다. [...] 이러한 최인훈의 말의 배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스포일된 사회에서도 결국 우리 자신의 성감대를 꾸며낼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에게 맞는 풍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숨겨져 있다. 어떻게? 방법은 단 한 가지다. 경험적인 것을 결코 선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²¹⁾

서구문학의 직수입이란 그들의 발상법이나 표현양식을 그대로 빌려왔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풍속마저 우리 사회에 대한 고려와 반성 없이 우리 것인 양 받아들였던 것도 포함한다. 그것은 서구에서 경험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선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김현은 ‘경험적인 것’과 ‘선형적인 것’이 전도된 상황을, 한국문학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의미 깊은 지표로 인식했다. 그 점은 한국문학의 전개과정과 비극적 상황을 논의하는 1960-1970년대 비평문의 여러 곳에서 자주 논의의 중요한 단서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비평의 유형학을 위하여」(1985. 봄)나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1986. 겨울) 등 1980년대의 비평에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전도된 상황에서 김현도 실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역시 프랑스 문학을 정신의 선형적 형태로 받아들인

19) 「개화기 문학의 두 측면」, 『전집』 13, 260쪽.

20) 「한국문학의 기초」, 『전집』 15, 260쪽.

21) 「풍속적 인간」, 『전집』 2, 364-365쪽.

‘정신의 불구자’였음을 고백한 바 있다.²²⁾ 이처럼 한 사회의 독특한 구조 속에서 형성되어온 풍속과, 그 속에서 자라난 감정을 무시하고 서구에서 수입된 새로운 것을 마치 우리 것인 양 파악하는 풍토를 김현은 ‘착란된 풍토’라고 불렀다.

경험적인 것을 선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착란된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우선 솔직히 한국문화의 지지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그리고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기반을 과거의 문학작품 속에서 추출해내는 오랜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을 때, 그 행복된 결과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착란된 현대문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²³⁾

‘착란된 풍토’의 정신적 기반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문학의 고질적인 질병’²⁴⁾이라 여긴 ‘새것 콤플렉스’이다. 거기에는 프랑스 문학은 좋고 한국문학은 엉터리라고 인식했던 김현 자신처럼, 서구의 것은 언제나 좋고 옳다는 생각, 다시 말해 새것에 대한 갈망과 과거의 것에 대한 경멸이 숨어 있다.²⁵⁾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든든한 후견인으로서 외국의 시론으로 자기를 무장시키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외국의 새로운 사조에 민감한 반응을 표시하여 자기의 견문이 넓음을 과시해왔다.²⁶⁾ 이 경우 “한국의 현실은 항상 몇십 년 뒤떨어진 외국의, 서구의 현실에 지나지 않는다.”²⁷⁾ 바로 그렇기에 한국문학의 올바른 진전을 위해, 그리고 ‘새것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판과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는 프랑스 문학을 선형적으로 받아들였던 자기 고백과 반성을 거쳐, 한국문학의 정립을 위한 자국어의 틀과 구조, 한국문학의 이념형과 상상체계를 탐색해갔던 비평적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그가 타기해 마지않았던 ‘새것 콤플렉스’의 자기 그림자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신을 넓혀나”²⁸⁾간 비평적 작업의 결과였다고 할

22) 「한 외국문학도의 고백」, 『전집』 3.

23) 「한 외국문학도의 고백」, 『전집』 3, 22쪽.

24) 「1968년의 작가상황」, 『사상계』(1968. 12), 130쪽.

25) 「테러리즘의 문학」, 『전집』 2, 245쪽.

26) 「젊은 세대의 문학」, 『전집』 13, 266쪽.

27) 「한국문학의 가능성」, 『전집』 2, 57쪽.

28) 정과리, 앞의 글, 470쪽.

수 있다.

김현이 생각하기로 어느 사회이든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상상력의 편향과 집단적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회의 내적 필연성에 의거하여 얻은 문학 형태를 다른 사회에서 같은 형태로 추출해내려 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한국 문학사를 점철해온 새것 콤플렉스는 한국인의 상상력의 편향이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한 음험한 징벌”²⁹⁾로까지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러한 ‘새것 콤플렉스’가 다른 한편으로 역사의식의 불철저함과도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서구의 이론을 하나의 이념형으로 직수입하는 ‘새것 콤플렉스’는 이 땅과 저 땅을 구별하지 않은, 이데면 정신의 무국적 상태에서 자기가 속한 상황에 대한 투철한 역사의식이 없을 때 생겨나기 때문이다.³⁰⁾ 불철저한 역사의식으로서 ‘새것 콤플렉스’는 1950년대 문학을 비판하기 위한 상징적 언표이기도 했다. 1950년대 문학이 보편주의와 세계주의의 미로를 헤매었다고, 그들이 외친 인간이 한국인의 구체적인 모습이 없는 추상적인 인간이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다.

III. 역사의식의 다면성과 문화의 고고학

‘새것 콤플렉스’의 착란된 풍토와 관련된 역사의식은 김현의 비평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비평적 주체화와 1960년대 세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문학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비평에서 역사의식은 서로 다른, 그러면서도 밀접하게 연계된 다면적 층위로 나타난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엘리엇이 말한 전통의식을 뜻한다. 전통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때의 역사의식은 한 작가가 글을 쓸 때 전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역사의식이다.³¹⁾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문학인들이 재래의 시가와 소설에서 어떤 규제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 때문에 전통의 단절을 주장하고 서구문학에 대한 극도의 경시를 보였다라는 것이다. ‘새것 콤플렉스’

29) 『여성주의의 승리』, 『전집』 3, 105쪽.

30) 『한국문학의 가능성』, 『전집』 2, 56쪽.

31) T. S. 엘리엇 저, 이경식 편역, 『문예비평론』(범조사, 1985). 12-13쪽.

스와 역사의식의 결여가 만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다음으로 역사의식이 역사를 위한 헌신이며, 역사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때³²⁾, 그것은 전통 확립을 위한 새로운 세대의 역사적 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세대의식의 책무로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식의 두 번째 차원이다.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테제가 필요합니다. 만일 테제가 없다면 자기 자신이 테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전통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 전통을 우리가 형성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 그것이 한국문학이 우리에게 지워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자기 손이 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불을 밝히고 이 작업을 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³³⁾

역사의식으로서 세대의식은 자기 세대가 갖는 역사적 의미이자, 자신들 세대의 책무로 표명된다. 그것은 위 예문처럼 결연한 의지를 동반한다. 이러한 세대의식은 그의 비평에서 상당히 지속적이면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 그 이유는 그의 비평적 주체화나 세대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 세대의 역사적 책무와 가능성은 1950년대 문학과 의 차별화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글이 「한국 비평의 가능성」, 「1968년의 작가상황」,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테러리즘의 문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평문들이다. 「한국 비평의 가능성」에서 김현은 1950년대 비평의 성과로 인정적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 전통과 토속성의 구분, 비평의식·역사의식의 자각을 꼽고 있다. 그럼에도 김현이 보기에 그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들이 내보인 치명적인 약점은 그들 자신이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부딪힌 문제, 혹은 반드시 부딪쳐야 했을 문제의(고의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방기이다.³⁴⁾

1930년대 비평에서부터 당대까지 아무런 논리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고의 지독한 악순환을 되풀이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65년

32)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세대』(1969. 3), 205쪽.

33) 「젊은 세대의 문학」, 『전집』 13, 268쪽.

34) 「한국 비평의 가능성」, 『전집』 2, 103쪽.

대 비평가들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는 과제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술한 난관들을 포기해버리는 그 ‘악순환’을 저지하려는 ‘진지한 노력’이라는 것이다. 자신들 세대의 가능성을 자신 있게 개진할 수 있었던 데는 새로운 세대의 역사 인식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다. 1965년대 작가들의 세련된 언어의식은 역사의식의 결여라는 1955년대 작가들의 비판에 대해 김현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55년대의 작가들이 [...] 한국문학의 가장 시급한 면, 한국적인 발상법의 한계, 한국적 현실의 특이성, 한국어의 특성과 결점에 대한 탐구를 오히려 포기한 것에 비하면, 김승옥씨의 한국적 발상법에 대한 찬탁, 박태순씨의 한국적 현실의 특이성에 대한 탐구, 이청준씨의 한국인의 정신을 망치는 것에 대한 찬탁, 박상룡씨의 사머니즘적 세계의 논리화, 서정인씨의 한국농촌에서의 뿌떠 인텔리의 권태와 좌절 등은 보다 더 뚜렷한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입증한다. 65년대 세대의 특성은 역사의식의 결여로 인한 세련된 감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역사에 대한 뚜렷한 자각에 있다고 생각한다.³⁵⁾

김현의 주장에 따르면 1965년대 작가들의 세련된 언어의식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 ‘영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힘든 노력의 결과이며, 그것은 1965년대 작가들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다. 1950년대 문학인들과의 차별적 입장은 「테러리즘의 문학」에서 보다 선명하게 부각된다. 이 글에서 김현은 1950년대 문학의 한계를 첫째, 사고와 표현의 괴리, 둘째, 감정의 극대화, 셋째, 폐쇄적 개방성으로 정리한다. 그러면서 김현은 이러한 한계가 책임질 수 없는 역사에 대한 한탄에서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50년대의 모든 문학적 이론 뒤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역사에 대한 한탄이 숨어 있다. 어느 경우에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또 어느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뿐, 책임질 수 없는 역사에 대한 자각은 편재해 있다. [...] 50년대 문학인들의 감정의 극대화와 새것 콤플렉스는 결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역사에 대한 한탄에서 기인한다.³⁶⁾

위의 진술에는 1950년대 세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1960년대 세대로서

35) 「1968년의 작가상황」, 앞의 책, 132-133쪽.

36) 「테러리즘의 문학」, 『전집』 2, 256쪽.

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이 함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되새겨보아야 할 사실은 1950년대 문학인들에 대한 모든 비판의 중심에 역사적 책무에 대한 방기가 놓여 있다는 점이다. 훗날 김현은 “사일구 세대만이 자기가 부딪힌 세계와 성실하게 싸운 세대는 아니었지만”³⁷⁾이라며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당시의 김현은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오직 자기 세대의 책무로 받아들였고, 그러한 책무는 사일구 세대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그의 의지는 “정말로 우리가 그 일을 맡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³⁸⁾라며 결연했는데,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은 소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했다. 예컨대 유현종의 일련의 작품과 소설 속 인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초반의 서문들은 현실과 강인하게 대결하는 의지와 신념의 인물로 그려져 있다. [...] 후반의 서문들은 그 감탄할 만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기만자에 지나지 않는다. 황조역과의 기대되었던 대결은 갑자기 바뀌어서 서문들의 영웅적 행위로 환치된다. 현실과의 진지한 대결은 뒤로 물러가고, 감상적이고 충격적인 한 거인이 갑자기 전면에서 나타나, 그의 현실의 모든 무게를 지워버린다. 그의 현실의 모든 것은 그의 감상적인 거인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다 극복되어버린다. 한기자의 태도 역시 그렇다.³⁹⁾

유현종의 소설 속 인물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영웅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인들이 실은 현실을 기피한 감상주의라는 것이다. 김현이 파악하기에 정말로 역사와 의지를 아는 사람들은 현실과 부딪혔을 때, 그것과 정면에서 대결하기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유현종 소설에서 바람직한 인간들은 감상적 영웅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박한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반면 이청준의 소설이 유현종의 소설에 비해 현실감을 갖는 것도 이청준 소설의 인물들은 뚜렷한 세대의식을 갖고 자신들 세대의 비극적 모습을 여러 면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김현의 소설비평 여러 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 이효석을 두고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서 눈을 돌린 위장된

37)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전집』 7, 243쪽.

38) 「편집자의 말」, 앞의 책.

39) 「미지인의 초상2」, 『전집』 2, 273-274쪽.

조화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며⁴⁰⁾, 책임의식이 결여된 연민은 센티멘털한 휴머니즘의 낙서가 되어버린다거나⁴¹⁾,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은 자기 세계를 가진 션⁴²⁾이라는 평가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 문학을 향한 김현의 공격적인 비판에는 세대적 정체성과 비평적 주체의 정립이라는 현실적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김현은 1960년대 중반부터 김승옥·박태순·이청준·박상룡·서정인·최인훈·홍성원 등을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김현의 비평적 주체화를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했다. 비평가에게 “모든 작가들이 분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뛰어난 작가들과의 싸움을 통해서만 비평가는 자란다”⁴³⁾는 그의 말처럼 그들이 수준 높은 작가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세대적 정체성을 정립해야 했던 김현에게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작가들”⁴⁴⁾이었다. 실제로 김현은 「김승옥론」(『현대문학』, 1966. 3)을 시작으로 일련의 비평문을 통해 1950년대 문학과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1960년대 문학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질서나 테제 혹은 전통이 없다면, 작가로서는 자기 자신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자각은 55년대의 작가들에게서는 참 찾기 어려운 것에 속한다. 적어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55년대 작가들과 65년대의 작가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⁴⁵⁾

55년대 작가들이 만든 주인공들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는 그들이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무의지적으로 수락해버린다는 것이다. [...] 반면에 65년대 작가에 이르면서 소설의 주인공들은 섬세한 변모를 감수한다. 55년대 작가들의 무의지적이며 수동적인 주인공들의 의식이 점차 깨어나기 시작하고, 자기 환경과 상황의 의미를 깨어내려는 시도를 시작하게 된다. [...] 65년대 작가들의 주인공들은 그 상황을 뚜렷이 인식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이다.⁴⁶⁾

40) 「이효석과 「화분」-존재에의 잠김」, 『사상계』(1966. 3).

41) 「굴욕과 수락」, 『전집』 2, 406쪽.

42) 「자기 세계의 의미」, 『전집』 2, 385쪽.

43) 「행복한 책임기」, 『전집』 15, 235쪽.

44) 「젊은 문학을 만나고 싶다」, 『전집』 14, 301쪽.

45) 「미지인의 초상1」, 『전집』 2, 261쪽.

46) 「자기 세계의 의미」, 『전집』 2, 383-384쪽.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현은 여러 비평문을 통해 현실의 '수락'과 '극복', 역사에 대한 '방기'와 '책무'를 1950년대 문학과 1960년대 문학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로 제시해왔다. 이것은 자기 세대의 문학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내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를 통해 김현은 자신의 비평적 주체화를 현실화하면서, 사일구 세대의 문학적 책무를 선명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물론 자기 확인의 과정,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 속에서의 위치와 책임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한 시대를 살고자 할 때는 그 시대의 병폐와 고질에 대한 문화사적인 탐구가 앞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탐구는 왜 우리는 이런 탐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탐구까지를 포함한다. 이 탐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철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인 없이 그것을 뛰어넘겠다는 태도는 한국문학의 고질적인 특성 중의 하나인 지적 스노비즘에 지나지 않는다.⁴⁷⁾

자신이 놓인 위치에 대한 문화사적인 탐구는 이제 역사의식의 세 번째 층위인 문화의 고고학으로 연결된다. 김현이 문화의 고고학을 거론한 애초의 문제의식은 참여론 시비와 관련해서였다.⁴⁸⁾ 그는 도식적인 참여를 부정하는 대신 한국의 현실에 대해 정당하고 논리적으로 고찰하는 문화의 고고학적 노력을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문화의 고고학은 우리의 발상법은 무엇이며, 그것이 서구의 발상법과 어떻게 다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김현의 역사의식이 함유하는 또 다른 개념이 그것이었다. 김현이 한국현대소설을 진단하는 자리에서 꼽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역사의식의 결여였다. 그는 이때의 역사의식이 도식적인 참여가 아님을 강조한 뒤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서구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이해하고, 그 문화구조의 공접(共接) 부분 공접하지 않는 부분을 밝혀내는 일을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의 기원학이며 고고학이다. 서구정신의 형성이 어떠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나왔는가, 그 문화의 기원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일이 그때에는 우리 문화 혹은 정신의 고고학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⁴⁹⁾

47)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앞의 책, 205쪽.

48)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 《동아일보》, 1967년 11월 9일자; 「1968년의 작가상황」, 앞의 책.

김현의 입장에서 문화의 고고학이야말로 ‘정당한 역사의식’⁵⁰⁾이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프랑스 문학에 심취했던 김현이 한국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국 문학을 선협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작 외국 문학도 한국문학도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 끝에 도달한 것이 문화의 고고학이었다는 것이다. 문화의 고고학은 자기가 서 있는 상황을 투철히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여 극복해나가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자기 문화의 특수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⁵¹⁾라고 반문한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상관없이 무차별로 수입, 전파되고 소멸하는 ‘새것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이념을 한국사회의 자연적인 형성과정에서 유출하고 논리화시켜 한국사회의 상징적 기호로 만드는 작업을 포함한다.⁵²⁾ 그가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였다. 여기서 문화의 고고학이 ‘경험적-선협적인 것의 전도 및 ‘새것 콤플렉스’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IV. 샤머니즘과 허무주의의 극복

김현의 비평에서 역사의식이 단일한 의미가 아님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역사의식을 통해 그가 강조한 것은 자신들 세대의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탐색과정이었다. 그 가능성과 짝을 이루는 구체적 작업으로 내세운 것이 샤머니즘과 허무주의의 극복이다.⁵³⁾ 우리 문화의 근본적 양상을 밝히려는 문화의 고고학은 우리 문화가 커온 ‘자리’를

49) 「한국현대소설을 진단한다」, 『현대문학』(1968. 1), 333쪽.

50) 「1968년의 작가상황」, 앞의 책, 137쪽.

51) 「글은 왜 쓰는가」, 『전집』 3, 28쪽.

52) 「글은 왜 쓰는가」, 『전집』 3, 26쪽.

53) 김현의 첫 소설비평집인 『사회와 윤리』 1장의 표제도 ‘샤머니즘과 허무주의’이다.

알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기반을 과거의 문학작품 속에서 추출해내는 작업과 통한다. 그 원점에 놓인 과제가 김현에게는 한국인의 정신적 편향 혹은 상상체계에 대한 탐구였다.

허무주의와 샤머니즘의 극복이라는 주제는 한국문학의 여러 측면을 조사함으로써, 한국인의 상상체계에 접근해나가려고 애를 쓴 나의 모든 탐구의 원점이다. [...] 한국인의 상상체계의 근본적인 모습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한국문학의 평가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의 문학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상상체계의 근본적인 모습이 그 특수성을 발판으로 「인간」의 상상체계 속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면밀히 탐구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탐구의 가능성은 한국문학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빨리 찾아내야만 얻어질 수 있다.⁵⁴⁾

한국문학의 양식화를 고찰하는 한 글에서 김현은 한국인의 정신적 편향이 「미래상의 현세적 집약에 있다고 파악한다. 그것은 현세의 이익을 무가나 주술 등에 의해 추구하는 현세 집약적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은 이러한 사고 양식에서 개인의식의 소멸, 사고의 미분화,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독특한 세 가지 틀이 생겨난다고 보았다.⁵⁵⁾ 개인의식의 소멸은 샤머니즘의 집단적 주술성이나 개인의식의 초탈과 깊은 연관이 있다. 개인의식이 중요한 것은 자기 세계나 개성의 확보에 필요하기 때문임은 물론, 자기가 속한 사회와 위치를 확인하는 역사의식도 투철한 개인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고, 문학이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개인과 현실이 만나는 현장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김현에 따르면 샤머니즘의 세계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역시 비개성적인 것에 대한 혐오와 개인적인 삶의 가능성에 대한 열망을 전제로 한다.⁵⁶⁾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극복이라고 할 때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이러한 샤머니즘적 현상에 대한 극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김현이 소설 분석을 통해 샤머니즘의 극복을 다양한 관점에서 뒷받침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샤머니즘 세계의 극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한 작가는 박상룡이었다. 그리고 그의 여러 비평문에서 박상룡 소설의 특성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볼

54) 「샤머니즘의 극복」, 『현대문학』(1968. 11), 296쪽.

55)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전집』 2, 18-24쪽.

56) 「샤머니즘의 극복」, 앞의 책, 301쪽.

수 있다. 김현의 분석을 요약하면, 박상룡 소설은 소설의 주요 무대로서 농촌, 문장의 울조성, 정확한 남도사투리, 폐쇄적이고 주술적인 비유와 어휘를 통해 일상적인 논리를 거부하는 샤머니즘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런데도 그의 소설은 기이한 우회로 끝에 지적이며 논리적인 세계의 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⁵⁷⁾ 이러한 논의에서 김현이 샤머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샤머니즘적 세계의 논리화'⁵⁸⁾였다.

샤머니즘의 논리화는 샤머니즘적인 것을 소재로 택하면서도 샤머니즘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묘사해내는 것, 그럼으로써 그 세계의 의미와 한계를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⁵⁹⁾ 이것은 한국소설의 약점과도 관련이 있다. 김현이 꼽는 한국소설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⁶⁰⁾ 이를테면 현실과의 긴장관계를 비논리적이고 순간적으로 해소시키는 세계에는 불화마저도 화해의 형태로서 존재한다.⁶¹⁾ 그런데 박상룡의 세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불화를 불화답게 파악하여 불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정신을 독자에게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박상룡이 뛰어난 작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샤머니즘은 일차적으로 한국인의 삶을 관류하는 무속 신앙이면서 미신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토속적이고 불합리한 세계에 대한 정신적 성향을 뜻한다. 그러나 김현의 비평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의 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⁶²⁾ 김현이 샤머니즘의 극복을 한국문학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데는 그것이 당대 사회의 병폐이자 혼란된 양상의 근본 원인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없는 '정신의 샤머니즘'이 지독한 사고의 악순환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그렇기에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제기된 술한 난관들

57) 위의 책, 306-307쪽.

58) 「1968년의 작가상황」, 앞의 책, 133쪽.

59) 「요나 콤플렉스의 한 표현」, 『전집』 2, 431쪽.

60) 「광적인 아름다움」, 『전집』 15, 369쪽.

61) 「글은 왜 쓰는가」, 『전집』 3, 29쪽.

62) 「『문학과정성』 창간호를 내면서」, 『전집』 16, 49쪽.

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방기하였다는 것이다.⁶³⁾ 참여와 순수의 지루한 순환 논쟁이나 1950년대 문학의 양분화 현상 역시 상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척결하는 비논리적 태도에 원인이 있다.⁶⁴⁾

샤머니즘의 여러 현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현이 극복하고자 했던 심리적 기제는 허무주의였다. 그가 말하는 허무주의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개인과 존재에 대한 강한 의식과 성찰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개성적 허무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적 현실의 후진성과 분단 현실에서 형성된 '심리적 패배주의'이다. 김현의 판단에 따르면 그것이 한국인의 의식을 참담하게 만들고, 문화·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한국인을 억누르는 억압체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샤머니즘의 극복이란 명제가 대체로 선언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 중심이 놓여 있다면, 허무주의의 실상과 극복은 구체적인 작품 분석이 병행된 실제 비평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여류시인들의 공통적 특성인 '감상과 체념의 응어리'⁶⁵⁾나 초기 자유시에서 나타나는 '탄식과 설움'⁶⁶⁾ 역시 허무주의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허무주의는 시와 소설 모두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소설비평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진한다. 그것은 사회의 많은 모순점에 대해 고의적으로 눈을 감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한국 현대소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태도의 연장에서 소설의 주인공들도 체념과 오기에 절여진 인간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⁶⁷⁾ 뿐만 아니라 무협소설에 대한 중산층의 흥미 역시 개인의 무력함이 바탕이 된 비개성적 허무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 김현의 진단이다.⁶⁸⁾ 이러한 허무주의는 체념과 실의의 동의어이며, 센터멘털한 포즈에 함몰되어 상황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없는 수동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런 세 타입의 유형은 그것이 전부 자아의 상실·기만·포기라는 점에서 몰개성적

63) 「한국 비평의 가능성」, 『전집』 2, 105쪽.

64) 「테러리즘의 문학」, 『전집』 2, 253쪽.

65) 「감상과 극기」, 『전집』 3, 35쪽.

66) 「여성주의의 승리」, 『전집』 3, 117쪽.

67) 「한국문학의 기초」, 『전집』 15, 260쪽.

68) 「무협소설은 왜 읽히는가」, 『세대』(1969. 10).

허무주의의 심연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상황과 타인에 대한 어떠한 대립의식, 거리의 식도 거기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생겨나는 것은 예절·자유…혹은 오기·허풍·오만…혹은 센티멘틀리즘을 동반한 포즈이다.⁶⁹⁾

김현의 분석에 따르면 몰개성적 허무주의는 세 타입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유형은 상황을 이겨내려는 의지 없이 상황 속에서 발버둥치고, 둘째 유형은 추상화된 어떤 것을 무조건적으로 숭앙하며, 셋째 유형은 진정한 정신적 외상도 없이 포즈화한 외상을 정말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김현은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이러한 타입이 여러 작가의 작품에 침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첫째 유형은 이범선의 「오발탄」과 전광용의 「꺼삐딴리」에서, 둘째 유형은 이호철의 「고여 있는 바다」와 남정현의 소설에서, 셋째 유형은 김성한의 「바비도」와 오상원의 「모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무기력, 체념, 포기, 허무, 실의, 좌절 등의 의식적 성향을 기반으로 한 한국적 허무주의 혹은 심리적 패배주의가 춘원을 시작으로 이호철과 김승옥의 소설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김현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실질적으로 김현의 첫 소설비평에 해당하는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에서 엿볼 수 있다. 대표적 농촌소설인 『흙』과 『상록수』를 다룬 이 글에서 논의의 초점은 등장인물의 현실직시와 대결의식의 졸렌(sollen)에 놓여 있었다. 이를테면 『흙』에서 허송의 농촌운동은 현실과 대결하지 않고 도피한 위선과 작위의 드라마이며, 『상록수』에서 현실을 직시하려는 동혁의 노력 역시 위선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안일에서 나오는 위선과 패배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dignité)을 찾는 인간존재의 개현(開顯)”⁷⁰⁾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패배의식에 대한 김현의 부정적 문제의식이 ‘허무주의’라고 명명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자신들의 세계를 정립하고자 했던 김현이 허무주의에서 기인한 심리적 패배주의를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김성한의 작품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 역시 짙은 허무주의

69) 「허무주의와 그 극복」, 『전집』 2, 219쪽.

70)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 『세대』(1964. 10), 153쪽

적 체념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바비도의 죽음은 신념의 순교자가 아니라 체념의 순교자라고 비판한다.⁷¹⁾ 이범선의 주인공들도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인물들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⁷²⁾ 뿐만 아니다.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그의 비평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 가령 역사를 위한 몸부림은 패배주의의 소산이라는 비판이나⁷³⁾ 국수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우파적 민족문학은 “한국 우위주의의 가면을 쓴 패배주의자의 문학에 지나지 않는다”⁷⁴⁾는 주장, 그리고 “작가 자신들이 너무 쉽게 해답을 상정하거나, 해답을 포기해버린 데서 얻어지는 패배주의적 사고”⁷⁵⁾라는 지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발언들에서 우리는 상황과 대결하지 않는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김현의 부정적 인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훗날 사일구 세대는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총체소설가들이었다”⁷⁶⁾고 숭회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에 굴복하는 체념과 패배주의에 대한 관심은, 상상력과 욕망에 대한 탐구로 진행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때로 그것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한 전략적 담론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참여론 시비가 사실상 패배주의의 가장 음험한 증상이라는 공격적 발언이나, 1950년대 세대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김현이 부정적 인식만 드러낸 것은 물론 아니다. 그의 실질적인 의도는 허무주의와 패배의식의 극복에 있었다. 때문에 비판의 한편에서 극복의 가능성을 탐문하기도 하였는데, 몇몇 작가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았다. 이를테면 산다는 것이 굴욕이라면 그 굴욕마저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긍정적 구원의 태도를 보여준 홍성원이나(「미지인의 초상」), 날카로운 의식을 통해 현대 한국사회의 여러 모습을 전체적인 면에서 명쾌히 파악하고 있는 서정인(「행동·지성으로 아는 현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김승옥의 소설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몰개성적 허무주의의 극복이란 불가능하다는 사고의 편린”을 보았으며,

71) 「신념과 체념의 인간상」, 『전집』 2, 309쪽.

72) 「소시민의 한계」, 『전집』 2, 331-332쪽.

73)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앞의 책, 205쪽.

74) 「민족문학의 의미」, 『전집』 2, 226쪽.

75) 「테러리즘의 문학」, 『전집』 2, 253쪽.

76)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전집』 7, 245쪽.

최인훈에게서는 “자기 정체의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의 식의 확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러면서 김현이 제시하는 극복의 방법은 “자신의 내부와 자신의 외부를 세밀히 살피고, 개인의 수평에서 상황을 극복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얻어질 수 있”⁷⁷⁾다는 것이다.

김현의 판단대로 자신이 서 있는 사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이 한국소설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면⁷⁸⁾, 그리고 그러한 전형적인 패턴이 한국적 허무주의에서 기인한 심리적 패배주의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다. 즉,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거나 체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말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이다. 이것이 1950년대 문학을 비판했던 김현의 기본적인 인식이었고, 자신들 세대가 열고자 했던 새로운 문학의 지평이었다.

V.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삶의 기원으로서 ‘살 만한 곳’

김현이 제시한 허무주의의 극복 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시금 중요하게 되새겨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사회의 많은 모순들에 눈을 감지 않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김현의 작가관에 따르면, 작가의 도리는 한 사회의 정확한 모습을 그리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⁷⁹⁾ 또한 유통하는 사회의 어떤 면을 예리하게 파헤쳐 자신의 구조 속에 그것을 육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⁸⁰⁾ 이때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의 비평에서 소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있는 그대로’이다. 그가 소설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작가의 현실 인식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 힘들과 어떻게 싸우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가”⁸¹⁾였

77) 「허무주의와 그 극복」, 『전집』 2, 220-221쪽.

78) 「한국문학의 기초」, 《동아일보》, 1967년 8월 1일자.

79)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 『전집』 15, 264쪽.

80) 「한국현대소설을 진단한다」, 앞의 책, 331쪽.

다. 삶의 현실은 어떻게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김현이 소설을 통해 읽어낸 것 중의 하나는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지와 구원의 문제였다. 가령 유현종의 소설에서는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미지인의 초상2」), 그리고 홍성원의 『디데이의 병촌』에서는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활 철학이 가치 있음을 밝히고 있다(「굴욕과 수락」). 또한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에서는 ‘사내’의 죽음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다는 것과 자기 구원이었음을 읽었으며(「김승옥론」), 장용학의 소설에서는 인간의 구원도 생의 한가운데에서 구원되어야 의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에피메니드의 역설」). 뿐만 아니라 최인훈의 〈가면고〉에서는 현대인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서 사랑이 제시되고(「정신의 치유술」), 쥘리앙 그린의 여러 소설에서 김현이 읽어낸 것 역시 인간 존재의 의미와 구원에 대한 욕망이었다.⁸²⁾ 그런데 그것은 비단 소설의 영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실존적 개인으로서 김현 자신이 10대 후반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내 글쓰기의 시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산층으로서 내가 살아나가는 길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내 글들의 기본 요소를 이루고 있다. [...]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아서 이 세계의 무의미와 싸워야 한다. 10대 후반에서부터 사실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되뇌이던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겠다.⁸³⁾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야겠다’는 것은 물론, ‘이 세계의 무의미와 싸워야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학적인 연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모색이 욕망과 억압에 대한 비평적 탐색 및 꿈과 고통으로서의 문학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 내적 동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현이 여러 곳에서 힘주어 표명한 바와 같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81) 「자서」, 『전집』 2, 147-148쪽.

82) 강경화, 앞의 논문(2014), 181쪽.

83) 「책 뒤에」, 『전집』 14, 406쪽.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은 행복하게, 다시 말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⁸⁴⁾

작가는 자기 생존의 가장 아픈 상처를 그가 속한 사회의 질환으로 환치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반대의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와 자기가 굳게 얽매어 있으며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일이다.⁸⁵⁾

김현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인간은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알맞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 그러나 그 터전 속에서 인간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자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도 없이 그러한 현실을 수락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⁸⁶⁾ 그렇기에 작가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한국인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 싸우는 일이며, 비평가는 그러한 지적 노력을 폭넓게 문화 전반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작가와 마찬가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⁸⁷⁾ 만일 현실의 모순을 수락, 체념해버린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성찰도 필요로 하지 않은 문학이 생겨난다.”⁸⁸⁾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야말로 가장 ‘살 만한 곳’이다. 특히 김현에게 소설은 모든 예술 중에서 ‘살 만한 곳’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과 ‘살 만한 곳’을 만들려는 근원적인 욕망이 만나는 자리이다.

여기 내 욕망이 만든 세계가 있다라는 소설가의 존재론이, 이 세계는 살 만한 세계인가라는 읽는 사람의 윤리학과 겹쳐진다. [...] 모든 예술 중에서, 소설은 가장 재미있게, 내가 사는 세계는 살 만한 세계인가 아닌가를 반성케 한다. 일상성 속에 매몰된 의식에 그 반성은 채찍과도 같은 역할을 맡아 한다. 이 세계는 과연 살 만한 세계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⁸⁹⁾

84) 「자서」, 『전집』 2, 147쪽.

85) 「전환기의 문학」, 『전집』 15, 293쪽.

86) 「수동적 세계관의 극복」, 『전집』 2, 438쪽.

87) 「비평 방법의 반성」, 『전집』 2, 192쪽.

88) 「한국소설의 가능성」, 『전집』 2, 94쪽.

89) 「소설은 왜 읽는가」, 『전집』 7, 222쪽.

김현에게 ‘살 만한 곳’이란 어떤 공간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의 편안함을 되찾고 싶어 하는 곳이자 행복한 무의식의 절대이며⁹⁰⁾, 언제나 되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공간이고⁹¹⁾, 예술 속 세계처럼 편안함을 주는 곳이다.⁹²⁾ 예술적 욕망의 본디 모습은 그것에 편안하게 파묻혀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그곳은 살 만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때 예술 속 편안함은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현실 영합적 편안함’이 아니다. ‘현실 부정 속의 편안함’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편안함 뒤에 세계는 그토록 편안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작품 속의 편안함이란 이 세계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느낌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다.⁹³⁾ 그래서 김현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산출하려는 의지·욕망의 상상력은 세계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는 욕망과 동형이라고까지 말한다.⁹⁴⁾ 소외되고 타락한 세계가 개조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작가가 우선해야 할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그 현실에 대해 생각하고 혹은 분노하고 혹은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⁹⁵⁾ 동시에 인간의 행복한 삶이라는 이름 밑에 감춰진 훼손된 가치, 억압적 폭력, 이데올로기적 허구 등을 드러내는 작업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해 김현은 여러 곳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 예컨대 1930년대 정치성을 배제한 문학이 한국민을 ‘있는 그대로’ 그리겠다는 노력을 보여준 최초의 문학이라고 평가하고⁹⁶⁾, 삶의 무의미와 현기증 나는 존재의 허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기 위해서는 광기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보여준 박태순의 〈단씨의 형제들〉은 1960년대가 낳은 가장 우수한 문학이라고 상찬하며⁹⁷⁾,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작가가 의지적으로 파악한 현실이며, 그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적합한 언어가 세련된 언어라

90) 「요나 콤플렉스의 한 표현」, 『전집』 2, 429쪽.

91) 「소설은 왜 읽는가」, 『전집』 7, 215쪽.

92) 「진흙 덩어리들」, 『전집』 14, 432쪽.

93) 「예술적 체험의 의미」, 『전집』 14, 323쪽.

94) 「남과 사랑」, 『전집』 4, 96쪽.

95) 「인간 본능의 왜소함을 직조」, 『전집』 15, 44쪽.

96) 「토속성과 세계성」, 『전집』 13, 434쪽.

97) 「광신의 현실 파악」, 『전집』 15, 403쪽.

고 주장한다.⁹⁸⁾ 또한 정치적 야만주의나 심미적 추상주의에서 벗어나 한국 현실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⁹⁹⁾, 한국 현실의 기묘한 모순을 그대로 기술하는 데에 한국소설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발언한다.¹⁰⁰⁾ 이러한 일련의 발언에 주목해보면 김현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얼마큼 증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러한 현실을 통해 삶과 진실을 드러내고, 그것과 대면하면서 보나 나온 세계와 삶, ‘살 만한 곳’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모순을 해답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모순답게, 모순을 모순으로 인정하게끔 제기하는 것이다.¹⁰¹⁾

진정한 예술은 도식적인 해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진정한 예술은 삶과 현실의 모순을 제기하고, 그러한 모순을 개인의 의식 속에 존재시킴으로써 그 개인을 고문한다. 한국소설의 가능성은 고문하는 기술 형식을 발견하는 데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¹⁰²⁾

김현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모사의 차원이 결코 아니다. 현실의 핵심을 깊은 통찰력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실체를 문학적으로 드러낸 현실을 말한다. 그곳에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화를 불화답게, 모순을 모순답게, 결핍을 결핍답게 드러내는 것이다. 독자는 작가가 드러낸 현실의 구조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의 부조리한 여러 측면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가짜 화해, 가짜 행복, 가짜 욕망, 가짜 충족에서 빠져나와 불화를 불화로, 불행을 불행으로, 모순을 모순으로, 결핍을 결핍으로, 억압을 억압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바로 이 때문에 박상룡 소설의 화해의 세계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불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 정신을 불러일으키고¹⁰³⁾, 최인훈의 소설을 읽으면 화해와 평화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를 더욱 잔인하게 고문하는 불화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며¹⁰⁴⁾, 김원일의 소설은 독자에게 두려움과

98) 「1968년의 작가상황」, 앞의 책, 133-134쪽.

99) 「소재 확대, 사회 측면 해부」, 『전집』 15, 413쪽.

100) 「한국소설의 가능성」, 『전집』 2, 91-94쪽.

101) 「전제 없는 상징, 지식인의 허약상」, 『전집』 15, 412쪽.

102) 「한국소설의 가능성」, 『전집』 2, 94쪽.

103) 「요나 콤플렉스의 한 표현」, 『전집』 2, 433쪽.

공포를 주고¹⁰⁵⁾, 이청준의 소설이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고문 장치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¹⁰⁶⁾ 일상적 삶 속에 편안하게 잠든 의식을 끊임없이 일깨워 이 세계와 현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것은 고문이다. 좋은 작품이 독자를 고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때 아름다움은 기존질서를 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인식으로 나타난다.¹⁰⁷⁾ 그러나 그 부정의 고통은 역설적으로 행복하다.

감히 말하거니와 가짜 화해로 끝나는 고통의 제스처보다는 끝내 부정적인 행복스러운 고통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 부정적인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행복스럽다. 자신이 고통이 됨으로써 그 부정적인 고통은 모든 거짓 화해와 거짓 고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결국은 인간이 행복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⁰⁸⁾

있는 그대로의 세계,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는 세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단시 되는 세계를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있어야 할 세계, 개조해야 할 세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계로 바꾸겠다는 의지 [...]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창작품이란 정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힘과의 싸움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¹⁰⁹⁾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그 세계를 수락하는 것도 아니며, ‘있는 그대로’ 드러난 현실에 멈추는 것도 아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다. 이때 부정적인 고통은 자신이 고통이 되어 행복한 삶을 싸워 얻게 하는 힘이다. 그것은 세계를 상투적으로 이해하고, 그 상투적 세계를 그대로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부되어 있다. 예술은 자신이 고통, 불행 그 자체가 되어 기존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¹¹⁰⁾ 마치 책읽기를 통해 자기가 불행이나 결핍이 되어, 충족이나 행복을 싸워 얻게 하는 움직임이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인 것과 같다.¹¹¹⁾ 현실을 그대로 수락하는 한 새로운 세계에

104) 「헤겔주의자의 고백」, 『전집』 2, 335쪽.

105) 「수동적 세계관의 극복」, 『전집』 2, 437쪽.

106) 「공정과 고문」, 『전집』 15, 465쪽.

107) 「비평의 방법」, 『전집』 4, 344쪽.

108) 「문학은 무엇에 대하여 고통하는가」, 『전집』 1, 58쪽.

109) 「획일주의에의 반성과 자성」, 『전집』 15, 302쪽.

110) 「현대 프랑스 문학을 찾아서」(홍성사, 1978), 87쪽.

대한 전망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는 김현의 전언은 “자기 손이 타는”¹¹²⁾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그렇기에 김현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비평적 작업을 통해 폭력의 구조와 억압의 부정적 힘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색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폭력과 억압이 없는 사회에 대한 비평적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그 시작과 끝에 놓인 것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살 만한 곳’을 향한 그의 근원적 소망이었다. 김현이 소설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삶의 현상이었으며, 문학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있어야 할 세계, 행복한 세계, ‘살 만한 곳’에 대한 꿈이었다. “글쓰기 자체가 사는 것 자체라는”¹¹³⁾ 것이 김현의 신념이고, 그의 비평이 ‘실존적 기획’으로서 자기 삶의 실현이었다면¹¹⁴⁾, ‘살 만한 곳’에 대한 그의 지향은 삶의 기원(祈願)이자 문학의 기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김현의 소설비평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비평 전체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는 특유의 여러 개념, 이를테면 ‘풍속’, ‘새것 콤플렉스’, ‘역사의식’, ‘문화의 고고학’, ‘허무주의’, ‘심리적 패배주의’, ‘샤머니즘’, ‘양식화’, ‘있는 그대로’, ‘살 만한 곳’, ‘억압’ 등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의 비평적 사유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가 문학론에서 제기했던 여러 비평적 문제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소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현이 자신의 비평세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비평적 노력을 기울인 것은 한국문학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1960년대 중반의 경험적 현실과 이상적인 기대 지평 사이의 막막한 거리에 놓여 있던 그에게 그것은 절실한 문제였다. 한국소설의 치명적 결함인 풍속의

111) 「책 읽기의 괴로움」, 『전집』 5, 233쪽.

112) 「전환기의 문학」, 『전집』 15, 293쪽.

113)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전집』 1, 69쪽.

114) 강경화, 앞의 논문(2014), 186쪽.

부재와 ‘새것 콤플렉스’, 역사의식의 불철저함과 세대적 책무의 방기, 광범위하게 편재된 비계성적 허무주의와 심리적 패배주의 등 김현의 눈에 비친 한국문학은 초라하였다. 이러한 진단에서 김현은 한국적 풍속의 형성과 투철한 역사의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의 고고학을 통해 한국문학의 새로운 이념형과 상상체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새것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과제가 사머니즘과 허무주의와 극복이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상상체계 또는 정신적 편향에 접근하려 했던 그의 비평적 탐구의 원점에 해당한다.

김현이 소설을 통해 읽어낸 것 중의 하나는 삶의 의지와 구원의 문제였으며, 평생에 걸쳐 소망한 것은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살 만한 곳’이었다. 이를 위해 작가가 우선해야 할 작업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은 불화를 불화답게, 모순을 모순답게, 결핍을 결핍답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억압적 폭력과 싸우면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김현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비평적 작업을 통해 폭력의 구조와 억압의 부정적 힘에 대해 탐색한 것은 자연스럽다. 물론 ‘살 만한 곳’이 사회적 합의나 공의(公義)를 이루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현이 소설을 통해 보고자 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삶의 현장이었으며, 문학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있어야 할 세계, 행복한 세계, ‘살 만한 곳’에 대한 꿈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김현 역시 전통 단절론에 경사되고, ‘새것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으며, 사일구 세대의 역사적 책무와 문학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한편, 1950년대 문학을 실제 이상으로 폄하하기도 하였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은 점차 자기 성찰과 갱신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그가 이룬 결실은 이러한 자기 갱신과 노력의 결과였다. 무엇보다 특히 한국문학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문학을 정립하기 위한 열정과 진정성이 김현 비평을 추동한 내적 동인이었던 사실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962년 “당신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가. 이 몸부림을 아시는가”¹¹⁵⁾로 시작하는 「당선소감」에서부터 만년에

115) 「5회 신인작품 당선소감-광인대화초」, 『자유문학』(1962. 4), 83쪽.

이르기까지 김현의 비평 인식 전체를 일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문학의 정립에 대한 바람이었다. '살 만한 곳'에 대한 김현의 지향이 삶의 기원(祈願)이자 문학의 기원이었던 것처럼 건실한 한국문학을 정립하기 위한 그의 소망 역시 삶과 문학의 절실한 기원이었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 김현,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 『세대』, 1964. 10.
_____, 「한국문학과 전통의 확립」. 『세대』, 1966. 2.
_____, 「한국현대소설을 진단한다」. 『현대문학』, 1968. 1.
_____, 「샤머니즘의 극복」. 『현대문학』, 1968. 11.
_____, 「1968년의 작가상황」. 『사상계』, 1968. 12.
_____,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세대』, 1969. 3.
_____, 『김현 문학전집』 1-16. 문학과지성사, 1991-1993.

2. 논저

- 가스통 바슐라르 지, 김현 역, 『몽상의 시학』. 홍성사, 1981.
강경화, 「김현 비평의 주체 정립에 대한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25집, 2005, 86-89쪽.
_____, 「김현의 초기 비평에 나타난 주체화와 담론의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6집, 2014, 174-197쪽.
고봉준, 「고문하는 문학, 꿈꾸는 문학」. 작가와 비평 편, 『김현 신화 다시 읽기』, 이룸, 2008, 97-118쪽
곽상순, 「김현의 소설비평에 나타난 ‘자유’와 ‘진실’의 의미 연구」. 『국제어문』 56집, 2012, 350-361쪽.
김윤식, 『작가와 내면풍경』. 동서문학사, 1991.
뱅쌍 데콩브 지,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1.
유성호, 「김현 비평의 맥락과 지향」. 『한국언어문화』 48집, 2012, 184-197쪽.
이경수, 「‘나’로부터 출발한 운명적 이중성」. 『김현 신화 다시 읽기』, 이룸, 2008, 137-169쪽.
이동하,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에 대한 고찰」. 『전농어문연구』 7집, 1995, 31-53쪽.
이승원, 「김현의 시비평에 대한 고찰」. 『선청어문』 23집, 1995, 835-849쪽.
임영봉, 「고통스러운 실존의 행복한 정신분석」. 『김현 신화 다시 읽기』, 이룸, 2008, 201-238쪽.
작가와 비평 편, 『김현 신화 다시 읽기』. 이룸, 2008.
정과리, 「못다 쓴 해설」. 『전체에 대한 통찰』, 나남, 1990, 465-490쪽.
T. S. 엘리엇 지, 이경식 편역, 『문예비평론』. 범조사, 1985.
페터 뷔르거 지, 김윤상 역, 『지배자의 사유』. 인간사랑, 1996.
하상일, 『한국문학과 역사의 그늘』. 소명출판, 2008, 320-340쪽.

국 문 요 약

김현의 소설비평에는 그의 비평 전체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는 김현 특유의 여러 개념, 이를테면 ‘풍속’, ‘이념형’, ‘새것 콤플렉스’, ‘역사의식’, ‘문화의 고고학’, ‘허무주의’, ‘심리적 패배주의’, ‘샤머니즘’, ‘양식화’, ‘있는 그대로’, ‘살 만한 곳’ 등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의 비평적 사유체계를 이루고 있다.

김현이 자신의 비평세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비평적 노력을 기울인 것은 한국문학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김현은 한국적 풍속의 형성을 주장하고, 역사적 책임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의 고고학을 통해 한국문학의 이념형과 상상체계를 탐색하는 한편, 샤머니즘과 허무주의와 극복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아울러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중시했으며, 동시에 소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김현이 소설을 통해 읽어낸 것 중의 하나는 삶의 의지와 구원의 문제였다. 그가 평생에 걸쳐 소망한 것은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살 만한 곳’이었다. 김현이 소설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삶의 현장이었으며, 문학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있어야 할 세계, 행복한 세계, ‘살 만한 곳’에 대한 꿈이었다. 한국문학의 건실한 정립과 ‘살 만한 곳’에 대한 김현의 지향은 삶의 기원(祈願)이자 문학의 기원이었다.

투고일 2015. 9. 18.

심사일 2015. 10. 20.

게재 확정일 2015. 12. 2.

주제어(keyword) 김현(Kim Hyeon), 소설비평(criticism for novel), 풍속(customs), 새 것 콤플렉스(complex about new one), 역사의식(consciousness on history), 문화의 고고학(archeology of culture), 허무주의(nihilism), 샤머니즘(shamanism), 있는 그대로(at it is), 살 만한 곳(place where life is worthwhile)

Abstracts

A Study on Criticism for Novel by Kim Hyeon: Focused on Recognition on Criticism and Thinking System

Kang, Gyeong-hwa

Criticism of novel by Kim Hyeon includes some unique concepts which are widely seen over his whole criticism, for example, 'customs,' 'style of idea,' 'complex about a new one,' 'consciousness on history,' 'archeology of culture,' 'nihilism,' 'psychological defeatism,' 'shamanism,' 'formalization,' 'as it is,' 'place where life is worthwhile' etc. His critical thinking system is based on close connection among them.

Kim Hyeon's efforts in criticism was to overcome falling behind of Korean literature from middle of 1960s when his critical world started to be formed. So Kim Hyeon asserted to form Korean unique customs and emphasized thorough recognition about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through archeology of culture, he explored style of idea and imagination system of Korean literature while suggesting important mission of overcoming shamanism and nihilism. He put importance on exactly seeing reality and disclosing 'as it is,' This was an important criterium to him to understand and assess novel.

One of things that Kim Hyeon read in novel was matter of willingness of life and salvation. His wish through his life so long was 'a place where life is worthwhile' where people are happy and like a human being. Kim Hyeon wanted to see reality 'as it is' and site of life through novel. He also dreamed of an world-to-be, a happy world, and 'a place where life is worthwhile.' Sound establish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his desire for 'place where life is worthwhile' were wish of life and literature.